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심성신 알렉산드라, 전지나 베아트리체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조성익 토마스 모어, 조은경 수산나	펀드 raising : \$285
금주 미사 복사: 조성익 토마스 모어	봉헌금 : \$221
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합계 : \$506
다음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로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김지원 카린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다음주 봉헌봉사: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조성익 토마스 모어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6월 15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6월 23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흥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6월 22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신학생 때에 지도 신부님이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미사를 드릴 때 깊이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준 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테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가 쓴 ‘봉헌’이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샤르댕 신부는 빵도 포도주도 제단도 없이 아시아의 대초원에서 이러한 지향으로 미사를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제로서 저는 온 땅덩어리를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세상의 온갖 노동과 수고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 낼 소출들을 저의 성반(聖盤)에 담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이 땅이 산출해 낼 열매들에서 짜낼 액즙을 이 성작(聖爵)에 담겠습니다. 주님, 일일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살아 있는 인류 전체를 저의 눈앞에 세웁니다. 이 하루 동안 더욱 작아질 모든 것,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들까지도. 주님, 이것이 저의 봉헌물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단 하나의 봉헌물입니다.” 그때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미사가 이렇게 풍요롭고 깊은 것이구나!’ 하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노동으로 얻은 수고의 열매와 사람들의 고통의 액즙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하느님께서 분명 기꺼이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멀리 있는 이와 가까이 있는 이, 살아 있는 이와 죽은 이가 서로 기억하며, 믿는 이들의 통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각기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로로
(608) 628-7977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6월 9일

<제 1 독서> 탈출기 24,3-8

<제 2 독서>히브리서 9,11-15

화답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2-16.22-26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서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반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162 봉헌:216 성체:163 파견:200



설악산 보름달과 속초 컴퓨터

한비야 비아 / UN 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6월 첫째 주부터 6개월간 파견근무 가려던 남수단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쌍방의 생명줄인 유전관리권이 걸려 있어 수단과의 충돌이 조용히 가라앉을지 전면전으로 확산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때문에 파견근무 출발일이 8월 초로 연기되었다. 덕분에 선물처럼 두 달이란 시간이 생겼으니 그동안 밀린 책도 읽고 산으로 들로 섬으로 다니면서 야영도 실컷 해야지 마음먹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악산 마등령에서 공룡능선, 희운각을 거쳐 천불동 계곡까지 1박 2일 산행을 했다. 하루 종일 펼쳐지는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 등 설악의 절경에 탄성을 지르느라 목이 다 쉴 지경이었다. 첫날, 해가 뉘엿뉘엿할 쫘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했다. 아침 보름이라 사방이 야간 라이트를 몽땅 켜 야구장처럼 눈부시게 밝았다. 달빛이 매우 좋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따끈한 차 한 잔 가지고 나와 고개를 젖혀가며 늦도록 달 구경을 했다. 둥근 달을 보며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달이 저렇게 밝아도 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 빛이 반사되어야만 빛날 수 있다던데, 그러면 태양과 떨어지는 그 순간, 저 찬란한 보름달도 그저 커다란 돌덩이가 되는 것 아닌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돌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보름달처럼 빛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면서도 내내 이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산에서 내려와 하루 묵기로 한 속초 친구네 집으로 갔다. 그날 오후까지 급하게 보내야 하는 원고가 있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전에 친구 노트북 컴퓨터부터 빌려 쓰기로 했다. 친구는 마침 한 달 전에 최신행을 샀다며 컴퓨터 자량을 늘어지게 하더니만 갑자기 당황해하며 컴퓨터 전원코드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는 거다. 아니, 뭐라고!!! 그 노트북이 초경량에 모양과 색깔도 예쁘고 성능도 매우 뛰어나면 뭘 하나. 바탕화면에 최신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사진들이 깔려 있으면 또 뭘 하나. 전원코드가 없으니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한순간, 어제 본 보름달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노트북도 한갓 쇠덩이에 불과하다. 전원에 연결돼야 컴퓨터가 작동하듯, 하나님의 아들딸인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나 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나의 주님은 설악산 보름달과 속초 친구의 컴퓨터를 통해 내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셨다.

† 공지사항

- 2012년 기부금 모금 결산
 - 총 모금액 : \$5,602
 -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2년 여름 캠프
 - 일시 : 6월 29일~7월 1일 (2박 3일)
 - 장소 : Pine Lake Camp
 - 비용 : 성인 \$45/1박, 청소년 \$30/1박
 - 신청서 마감 : 16일 미사 후
- 다음 주 미사 (16일) 후 여름 캠프 준비를 위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구역장님, 성모위원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추억어린 첫영성체

김주현 도미니코 신부 / 사무국장 신부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개구쟁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식사 예절과 방법,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있군요.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해마다 5월이 되면 해맑고 귀여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성당 교리실에서 수녀님이나 교리 선생님들로부터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림이 많이 그려진 책으로 배우고, 뭔가를 계속해서 읽고 외우면서 때로는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교리를 배우며 주요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를 배워야 세상에서도 음식을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인 성체를 모실 때도 성체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아 모셔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대부분 성당에서는 어린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첫영성체 예식을 거행합니다. 첫영성체 교리를 가르칠 때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식인 성체를 받아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쳤어요. 성체와 성혈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과 포도주로 감사 예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행하신 만찬 예식을 계속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념 예식이 바로 미사이며, 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사제들에 의해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이며, 하나님 사랑의 상징입니다.”

교우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도 제대로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성체를 처음으로 거룩하게 영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첫영성체 때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미사 때마다 참된 영적인 빵, 참된 영적인 밥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